



Session Sketch

The Asan Symposium:
“Celebrating Korea-US Relations: 140 Years and Beyond”
<http://asansymposium.com>

Session: Vision and Challenges of the ROK-US Alliance

Date/Time: June 3, 2022/13:20-14:35

Rapporteur:

Moderator:

Paula Hancocks, CNN

Speakers:

Jung Seung Jo, Korea-US Alliance Foundation

Kim Byung Jo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him Yoon-joe, Kookmin University

Bruce W. Bennett, RAND Corporation

Edwin J. Feulner, The Heritage Foundation

John Hamr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virtual participation)

Karen House, Harvard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플라 헨콕 CNN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2 세션은 한미동맹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이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맞서기 위한 양국의 강력한 핵 확산억제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서로 확인한 것은 정말 의미있다"고 강조하였다. 권위주의 동맹의 부상이 우려되는 요즘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핵무기 역시 걱정된다. 최근 북한의 편집증적인 미사일 테스트 정도가 높아진 이유는 김정은 정권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한다.

에드윈 풀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넘어선 한미일 삼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에 핵

**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

Session Sketch

The Asan Symposium:
“Celebrating Korea-US Relations: 140 Years and Beyond”
<http://asansymposium.com>

도입하는 이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다. 이라고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6 월말 한국이 나토정상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높이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테카 메초 주한 핀란드 대사는 유럽에서도 이제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바라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했다.

존 햄리(John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일관되고 강력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 특히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것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을 적극 활용하여야 북한 핵위협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카렌 하우스(Karen House) 전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은 "아산여론조사에 따르면 83%의 한국인이 한미일 삼각협력을 지지하고, 70% 이상이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지지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면서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계속 가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지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구체적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에드윈 풀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대안에 대해 한국 내 의견은 어떤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참가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베넷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제 다수의 핵무기를 초전부터 사용하는 공격적 핵교리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한국과 미국 역시 이에 걸맞은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

Session Sketch

The Asan Symposium:
“Celebrating Korea-US Relations: 140 Years and Beyond”
<http://asansymposium.com>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제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군사적 핵억제전략 역시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한미연합 대비태세의 강화가 한미동맹의 핵심이다”고 꼽았다. 그는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많이 약화되었고 군관민 훈련 규모가 줄어들면서 동맹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더 자주 행해야 하한다고 하면서 북한 핵무장억제를 위해 동아시아판 핵우산, 전술핵 한국 재배치 등을 고려하되 이것이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김병주는 “한미동맹은 핵확장 억제 정책을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의 수준을 가치, 경제, 문화 분야를 넘어서 기술동맹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윤조 국민대 교수는 “한국은 안미경중 등 중국을 향한 전략적 모호성,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에서 벗어나야 하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인권과 같은 국제규범을 강조하는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한미 공동의 북핵 억제를 위한 전략 수립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삼자협력도 중요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